

서유럽 주식시장 동향(4월) 및 5월 전망(2018.05.03)

김현진

☎ 82-2-3774-0423

✉ khj@futures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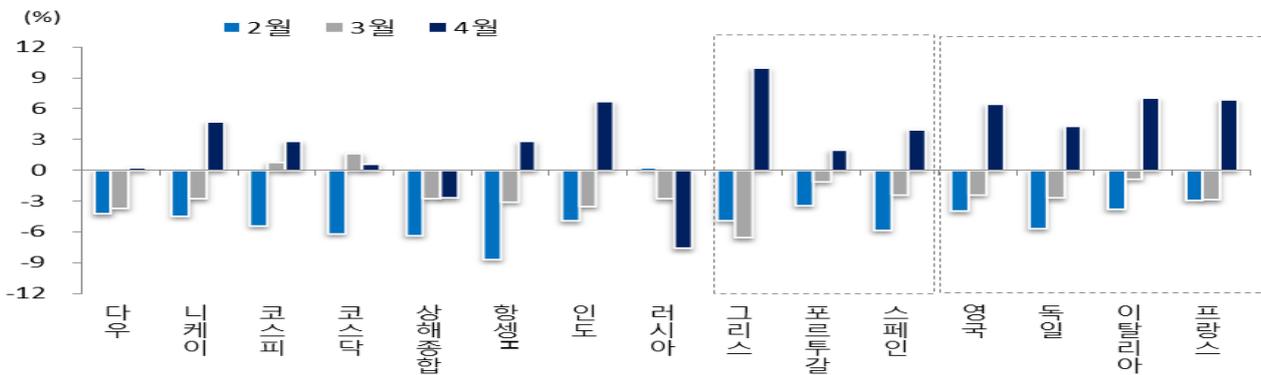
[4월 동향]

■ 4월 서유럽 증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'보아오 포럼'에서 개혁·개방의지를 밝힌 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부양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특히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 속 에너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

[5월 전망]

■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 점은 유로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Citi Economic Surprise Index가 -80p를 하회하는 등 경기개선 둔화 가능성 부각 및 이란 핵협정, 철강관세 협정을 두고 미국과의 대립 구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차트. 주요국 증시 월간 등락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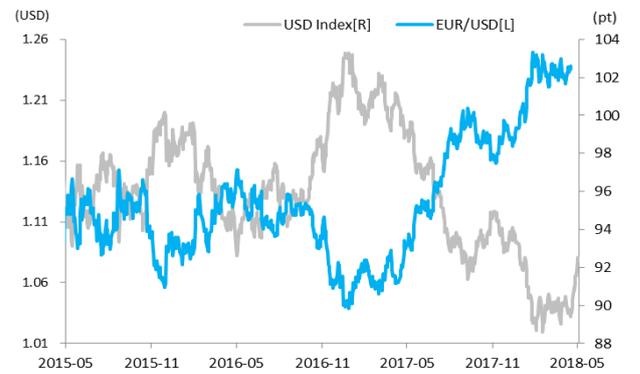


출처: 연합인포맥스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10년 국채수익률 / 차트. 유로-달러 환율, 달러인덱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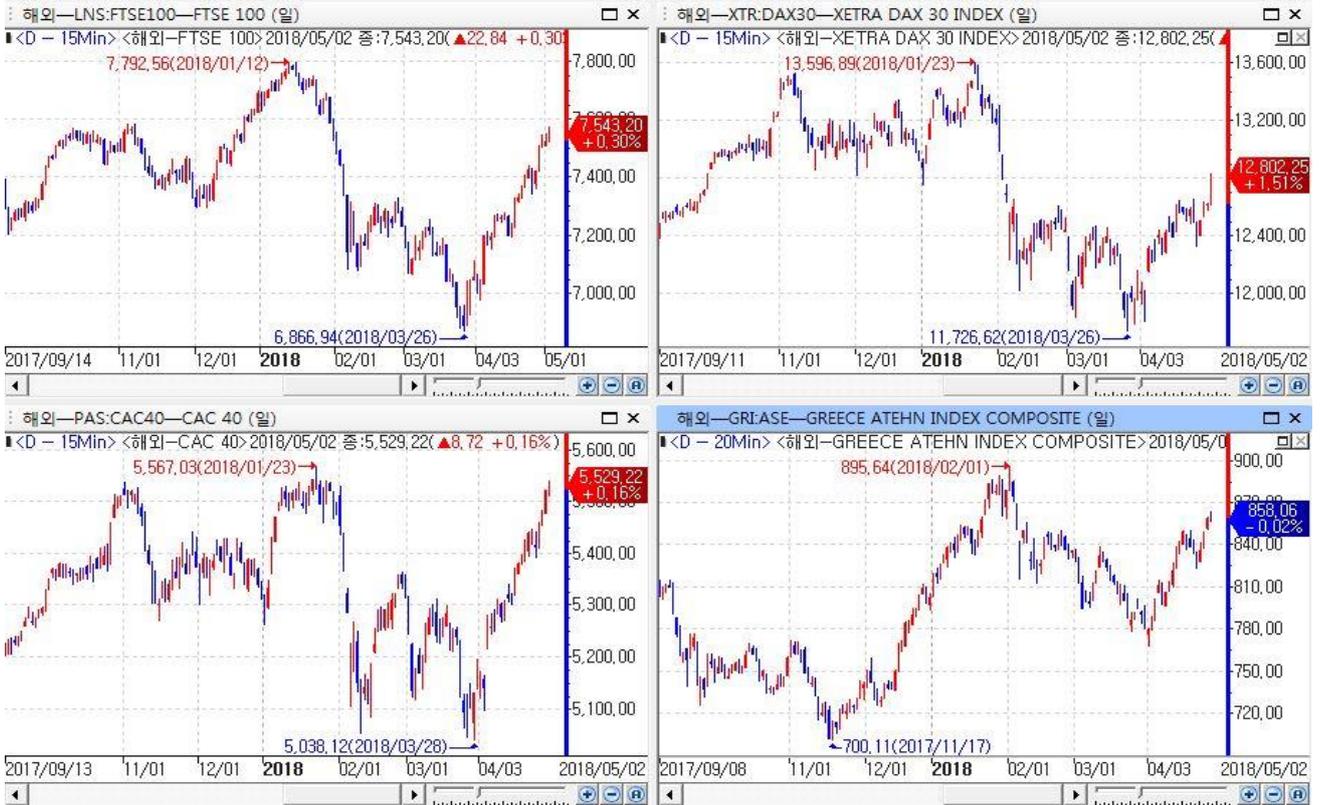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증시 추이 (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영국, 독일, 그리스, 프랑스)



출처: 연합인포맥스

[유로존 4월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]

- ▶ 독일 4월 CPI 1.6%(YoY) 전월 1.6%, 0.0%(MoM) 전월 0.4%
- ▶ 유로존 4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56.2, 전월 56.6, 서비스업 PMI 55.0, 전월 54.9
- ▶ 유로존 4월 ZEW 서베이 예상 1.9 (전월 13.4), 4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19.6(전월 24.0)
유로존 4월 경기체감지수 112.7(전월 112.7)
- ▶ 독일 4월 IFO 기업환경지수 102.1(전월 103.3), 경기동행지수 105.7(전월 106.6)
향후 6개월 기업전망지수 98.7(전월 100.0), ZEW 경기기대지수 -8.2(전월 5.1)
- ▶ 유로존 2월 산업생산 MoM -0.8%(전월 -0.6%), 산업생산 YoY 2.9%(전월 3.7%)
- ▶ 유로존 3월 CPI MoM 1.0%(전월 0.2%), CPI YoY 1.3%(전월 1.1%), 근원CPI YoY 1.0%(전월 1.0%)
2월 PPI MoM 0.1%(전월 0.4%), PPI YoY 1.6%(전월 1.6%)
- ▶ 유로존 2월 소매판매 YoY 1.8%(전월 1.5%). 소매판매 MoM 0.1%(전월 -0.3%)
- ▶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 0.4(전월 0.1)
- ▶ 유로존 3월 실업률 8.5%, 전월 8.5%
- ▶ 시진핑 주석이 ‘보아오 포럼’에서 개혁·개방 의지를 밝힌 후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위험선호 재개.
- ▶ ECB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고 부양적 기초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.
- ▶ 6월 초 예정된 철강관세 협정, 이란 핵협정에 대한 미국과의 대립 등 정치적 불확실성, 경기개선 둔화 우려는 지속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(www.futures.co.kr)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